이경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는 '전라북도'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전라북도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역이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는 쌀의 주산지로 한국농업의 상징인 곳이다.

전라북도의 자치행정을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 전라북도 도청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자리 잡고 있다. 복지 공동체 구현, 선진농업 육성, 지역경제의 발전, 문화관광 특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인 전라북도는 지역민들이 쉽게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곳이기도 하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태권도 공원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라북도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추구하고자 건강검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에 있다.

글 박난희 기자 **사진** 이상윤(SEOULEYE)

전라북도는 각종 암 예방과 조기치료 등으로 도민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저소득층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조기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1995년도에 전국 최초로 5개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들에게 가장 많이 빈발하는 주요 만성적 퇴행성 질환 조기 발견 검진 사업을 개시했다. 이중 이상소견자로 발견된 사람들에 한하여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해 종양 또는 암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있으면 전문의에게 안내 치료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방문간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외계층 주민건강보호에 앞장서는 계기를 조성했다.

질병예방과 치료로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여건 마련

전라북도는 모두 잘 사는 전북, 일자리 창출로 말미암아 활력 넘치는 전북, 첨단 신산업으로 앞장서는 전북을 지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라는 도정지표를 갖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결하고, 건강형평성 제공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전북의 의료 및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올바른 건강정

보제공을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한 생활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전문성 증대, 보건소의 기능 확충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과 전문가 집단, 행정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수준을 더 높일 뿐 아니라 전북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을 보장하여 건강보호에 앞장서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건강검진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

전라북도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환경 · 문화 · 건강을 겸비한 지역으로 주목받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관광지로서의 입지가 굳어진 전북은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멋과 맛, 예술의 고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자연적 혜택이 있는 곳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라고 도에 대한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전북은 이 흐름에 발맞춰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새만금 사업, 식품사업 프로젝트, 태권도 공원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사업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 노년층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과 건강검진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로 부임한 임재호 본부장에게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본부장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앞장서주길 바라며, 우리나라 건강증진 사업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여줬으면 합니다."라는 축하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도민 복지증진과 나아가서 의료비의 절감 효과 및 보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어 도민건강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북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신뢰받는 지부가 될 터

이에 지난 6월 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로 부임한 임재호 본부장은 "8년 만에 고향인 전북지부 본부장으로 다시 돌아오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고향이라 그런지 지켜보는 눈들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커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피부로 와 닿습니다"라며 "이런 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함께 도민건강증진과 복지에 앞장서는 지부, 봉사의 미덕을 갖춤으로써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지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뜻을 밝혔다.